

## 2022 제2차 학생대표 간담회, 트랙 구조조정 및 시설 구축 논의

### 폐지 대상으로 3개 트랙 논의 중, 종합상담공간 개설 추진

‘2022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지난 11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를 포함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트랙 구조조정 시행 계획’, ‘종합상담공간 구축 계획 안내’ 등이 논의됐다.

대학본부 측은 20·21학번 학생이 선택한 정원을 확인한 결과, ▲영미문화트랙(야간) ▲한국어교육트랙(주간) ▲금융·데이터분석트랙(야간) 등 총 3개의 트랙 인원이 미달된 것을 확인했다. 단, 현재까지 해당 트랙은 모두 ‘논의 대상’일 뿐, 폐지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영미문화트랙(야)’의 경우 20학번은 9명, 21학번은 7명의 학생이 선택했다. ‘한국어교육트랙(주)’은 20학번 12명, 21학번 14명의 학생이 선택했으며, ‘금융·데이터분석트랙(야)’은 20학번 9명, 21학번 8명의 학생이 선택했다. 본교 학사규정 중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트랙을 선택한 신입생 수’가 ‘2년 연속 주간 15명 또는 야간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트랙은 폐지된다. 조문석 기획처장은 “트랙 폐지는 쉽지 않은 절차지만 현재 직면한 환경과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 운영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논의 대상에 오른 트랙 관련 학생대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허민영(인문 4) 크리에이티브인문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해당 트랙 소속 학생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길 것으로 생각된다. 최대한 학우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용재(사회과학 3) 금융·데이터 분석 트랙장은 “악화된 상황에 아쉬운 마음이다.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세 가지 트랙에 속하는 교수 및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해 트랙 구조조정 절차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조 처장은 “학생자치기구별 학생회 의견과 트랙 소속 교수 및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전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답하며 “이번 간담회에는 1차적으로 트랙 구조조정 계획을 안내드린 자리였으며, 8월경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측은 종합상담공간 구축 및 공간 활용 계획 역시 밝혔다. 종합상담공간은 상상관 지하 2층에 마련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학생상담센터는 종합상담공간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박철우 총무부처장은 “학생들을 위해 취업이나 진로 등에 관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상담의 기능을 강화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 상담공간은 학생들의 개인 학습 및 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박 부처장은 “상상관 2층은 높이가 24m 정도로 낮은 편이기에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오픈형 공간으로 기본 기획안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간은 ▲프리즈온 ▲개별 학습존 ▲그룹존 세 파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즈온’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고 자연적인 인출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개별 학습존’은 조명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 '2022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가 상상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구성될 예정이다. ‘그룹존’은 단체 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조 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완화 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머물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휴식과 공부, 상담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생대표 측은 종합상담공간의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조현기(기계 3)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상상관 지하 2층에는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다. 지하 2층에 종합상담공간을 개설하게 되면

체육관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지(ICT 3)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현재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상관 파크는 많은 소음이 존재해 수업을 듣거나 발표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종합상담 공간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시설이 구축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학본부 측은 소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부처장은 “소음 방지 유리를 사용하는 등 최대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실용적인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다”며 “현재 디자인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

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간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은 “간담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감사하지만, 트랙 구조조정 이외 안건은 사전에 전달받지 못해 아쉽다. 다음 간담회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미리 안내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성욱 교무처장은 “여러 의견 주신 학생대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래 트랙 구조조정에 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 사항이 갑작스럽게 생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 거리두기 해제, 수업운영 소폭 변동...

### 학기 초 계획된 수업 방식 유지 대면 전환, 수강생 전원 동의의 必 선호 수업 방식 교수·학생 엇갈려

‘2022학년도 1학기 9주차 이후 수업운영(이하 수업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4월 26일 발표했다. 대학본부는 9주차 이후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수업운영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대면수업 확대 역시 허용했다. 또한 이번 수업운영에는 대학본부에서 시행한 ‘2022학년도 1학기 9주차 이후 및 코로나 이후 수업운영 방식 선호도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설문조사에는 교·강사 436명 중 178명(40.8%)이, 재학생은 6,640명 중 2,040명(30.7%)이 참여했다.

대면강의 확대에 대한 세부 계획도 공시

됐다. 교·강사는 운영 중인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대면강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든 수강생이 대면수업 전환에 동의하면 담당 교·강사는 교무처장에게 이를 승인받은 후,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녹화 강의와 대면 및 실시간 강의를 나눠 진행되는 블렌디드 수업과 달리,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때 실시간 화상강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승주(학사지원팀) 팀원은 “상당히 원거리에서 통학해야 하는 학생 등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 동의를 대면수업 전환의 조건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과 교·강사 모두 기존 수업체

획서대로 강의 방식을 유지하는 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지원팀 주도 하에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9주차 이후 수업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재학생의 75.8%, 교·강사의 61.8%가 ‘각 교과목별 학기 초 계획된 수업운영 방식 유지’를 선택했다. 대면수업 확대(학생 의견 수렴 후 추가 신청) 항목은 재학생 16.3%, 교·강사 24.2%를 기록했으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화상강의를 전체 대면수업으로 전환’ 항목에는 재학생 7.9%, 교·강사는 14%를 차지했다. 민경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학기 초에 수업계획서를 통해 수업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학기의 계획을 세웠기에 중도에 대면으로 전환하면 곤란하다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전언했다.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종식 이후 선호하는 수업운

영 방식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해당 물음에 대한 의견은 재학생과 교·강사가 엇갈렸다. 재학생 응답자는 비대면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렌디드(온라인+실시간)(31.3%)’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0% 온라인(29.4%)’, ‘블렌디드(온라인+대면)(22.7%)’, ‘100% 대면수업(16.6%)’이 뒤를 이었다. 하신범(예선 2) 학생은 “통학하면서 소모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블렌디드 형식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학생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비대면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교·강사 응답자는 대면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교·강사가 ‘100% 대면수업(36.4%)’을 택했다. ‘블렌디드(온라인+대면)(30.5%)’, ‘블렌디드(온라인+실시간)(23.8%)’, ‘100% 온라인(9.3%)’이 그 뒤를 이었다. 강상구(크리에이

티브인문학부) 교수는 “대학 수업은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기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차차 비대면강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근거해 시행됐다. 해당 방안에는 ‘수강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다. 대학본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수업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안 팀원은 “모든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의견 조율을 통해 가급적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제24대 한성학원 문동후 이사장 취임

## “한성대학교의 발전에 발맞춰 노력할 것”

지난 22일 제24대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73) 이사가 선임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해 학교법인 한성학원에 속하는 한성대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의 임기는 2025년 1월 3일까지다. 문 이사장은 2006년부터 한성학원의 이사로 부임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재단의 상황을 살피고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해 왔기에 이사장의 임무를 이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명문 한성학원의 이사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한성학원은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본교에 대해 대외적으로 융·복합 교육에 선구적인 대학으로서 타 대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성대학교는 한성학원 학교 중 핵심이라 생각하기에 학교를 통제하기보다는 한성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단의 역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성학원 재단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문 이사장은 언급했다. 그는 “재정적인 부분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위 내에서 수의구조를 다변화해 가며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인 2025년, 1945년에 조직된 한성학원은 설립 80주년을 맞이한다. 문 이사장은 임기 내에 창의융합을 선도해 ‘지선(至善)’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고, 한성대학교의 발전에 발맞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이전과 비교하면 한성학원의 위치는 비약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설립 80주년에는 그 명성에 걸맞은 재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문 이사장은 ▲총무처 조직국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제18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02 월드컵 축구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운영 부위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문동후 이사장

## ‘저자와의 만남’ 특강 열려

학술정보관에서 오는 22일까지 ‘저자와의 만남’ 특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연은 5월 24일 미래관 DLC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경우,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e-class 커뮤니티를 통해 강연을 시청할 수 있다. 특강에서는 베스트셀러 『방구석 미술관』의 저자인 조원재 작가가 ‘창조적 관객이 되어 미술을 보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완강 후 참여 후기를 제출한 학생에

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와 상상독서 마일리지 20점이 지급된다.

강연이 끝난 후 저자 사인회,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될 계획이다. 단, 이벤트는 오프라인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스마트자기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원(학술정보관) 팀원은 “이번 저자와의 만남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제17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개최

‘2022년 제17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6월 9일 오후 5시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4명) 20만 원 ▲장려상(6명) 5만 원으로 이뤄진다. 비교과 포인트는 순위에 따라 최대 60pt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상 받지 않더라도 20pt가 제공된다.

참가 학생은 ▲한국 사회 속 난민 ▲능

력주의 고찰 ▲MBTI 과잉 활용을 키워드로 출제된 세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대회를 주최한 사고와표현과정에서는 단과대별 특성과 함께 시의성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예선, 2차 예선, 본선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에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센터장은 “사고와 표현에서 쌓은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를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라고 전했다.

조예원 기자 zhozho0925@gmail.com

# 몸과 마음이 하나된 ‘낙산 봄 축제’

개교 50주년 기념 낙산 봄 축제(이하 축제)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축제는 크게 ▲2022 상상부기 가요제 ▲학생자치기구 야외부스 ▲동아리 공연 ▲푸드트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학생자치기구 야외부스에서는 총학생회를 필두로 한 학생자치기구와 본교 공식 홍보대사인 하랑이 참여했다. 축제기간 동안 부스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가칭)한성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이하 건립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2022 상상부기 가요제는 지난 4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무대에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랐으며, 순위는 실시간으로 진행된 재학생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수상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1명씩이며, 부상으로 상금 7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이 차등 지급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진주(IT1) 학생은 “가요제에 참가해 영광이었고, 추후 더 많은 관객 앞에서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건립기금을 마련하고자 미래관 앞에 야외부스를 설치해 플라

켓을 운영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의류, 액세서리, 전자기기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로 9일부터 11일까지 플라마켓을 3일간 연장 운영했다. 백태린(스마트4) 부총학생회장은 “생각보다 물품을 기부한 학생들이 많아 운영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자치기구로 야외부스에 참여한 총대의원회의 부스에서는 잔디광장에서 ‘사랑의 포춘 쿠키’, ‘청춘 편지’ 등을 진행했다. 김산(사회과학4) 총대의원장은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위원회 역시 부스를 열어 학생이 추억의 전통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부스에서 ▲팽이 ▲추억의 알까기 ▲높은 숫자 뽑기 등의 게임을 진행했다. 조현기(기계3) 학생복지위원장은 “저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학복위를 이겨라-!라는 콘셉트를 구상했다”고 부스 운영 취지를 밝혔다.

동아리연합회도 학생들에게 사진 촬영 후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이미지 포토’와 연애운이나 학업운 등을 알아보는 ‘영터리 타

로’ 부스를 운영했다. 동아리연합회와 더불어 일부 동아리도 다양한 부스를 진행했다. 권수민(인문3) 동아리연합회장은 “포도샵, 타로를 전문적으로 배운 부원들이 있어 더욱 질 높은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스에 참여한 최성윤(사회과학1) 학생은 “영터리 타로에서 본 연애운이 잘 맞아떨어져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는 우촌관 앞에서 화살로 양궁 과녁 맞추기, 김서방 찾기 게임 등을 진행했다. 허민영(인문4)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은 “학생들 간의 교류가 적었던 점을 고려해서 서로 모르는 학생끼리도 교류할 수 있게끔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부스에서는 필름 카메라 촬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어 말하기 ▲인물 맞추기 ▲고깔 쓰고 물건 맞추기 등의 릴레이 게임을 개최했다. 이재준(무역3)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사진으로 추억을 선사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디자인대학 학생회의 경우 학생들이 목

걸이와 팔찌 등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기획했다. 이혜지(ICT3)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단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IT공과대학 학생회는 게임 부스를 운영했다. 박성재(컴공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끌어올리고자 기획했다”며 부스 운영 취지를 밝혔다.

창의융합대학 학생회는 게임 부스를 열어 학생에게 상품을 증정했다. 송유경(인문3) 창의융합대학 학생회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 많은 참여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학생회 부스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헤어피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민기(뷰티3)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평소 도전해보기 어려운 머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는 2일에는 ‘한성 살롱’, 3일에는 ‘마카롱 만나전 부스’를 우촌관 앞에서 운영했다. 한성살롱은 뷰티디자인학과와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가 공동 진행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의 체험

이 가능토록 구성했다. 마카롱 만나전은 마카롱, 상상부기 쿠키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민혜경(호텔외식3)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장은 “미래플러스대학 재학생들의 본업에 충실해 보자는 취지로 부스를 열었다”고 전했다.

하랑이 개최한 ‘스윗위드하랑’ 부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간식을 판매했다. 부스 운영으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금은 건립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다. 김준호(미디어홍보팀) 팀원은 “학생들이 기부와 동시에 달달함을 얻어가는 콘셉트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6대의 푸드트럭이 잔디광장에서 각각 ▲스테이크 ▲닭꼬치 ▲초밥 ▲타코야키 등을 팔았다. 연구관 앞 버스킹 존에서는 공연예술분과 동아리 일부가 무대를 선보였다. 버스킹을 관람한 하정원(IT1) 학생은 “잔디광장에서 쉽게 무대를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제를 총괄한 지승민(IT응용4) 총학생회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축제가 진행될까 우려했지만, 활기찬 오프라인 축제를 기획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xzzero@hansung.ac.kr



▲학생들이 낙산 봄 축제를 맞아 잔디광장에 마련된 푸드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IT공과대학 부스에서 동전 던지기 게임이 진행 중이다.

# 거리 위의 날선 외침, 노동자를 위하여

‘멈춰! 반노동 정책, 없어! 불평등 체제.’ 지난 1일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이하 노동절 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 어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기치로 내 걸었다.

## 132년의 역사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로 5월(May)의 시작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메이데이(May Day)라 불린다. 노동절의 유래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서구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몸을 키우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긴 노동시간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경찰의 무력 진압에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일부가 사형까지 당하는 등 처참한 노동 운동의 역사가 기록됐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카고의 참사를 기려 5월 1일을 메이데일로 정하면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익숙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노동절’이었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라는 단어에 계급 의식이 담겨 있어 이를 희석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근로(勤勞)’란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의미는 점에서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노동(勞動)’보다 근면성실함을 당당한 자세로 여긴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명칭 수정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중이다. 일례로 이번 메이데이를 맞아 울산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업재해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노동자들이 서울시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단체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형편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했다. 그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으로 범망을 피해 가는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의 발생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만 따져도 노동 현장에 드러운 산업재해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57명이다. 지난해와 수치를 비교해보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감수해야 하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일하다 죽지 않을 사회를 꿈꾼다’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1일 열린 노동절 대회는 올해로 132주년을 맞았고, 민주노총의 주관 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이중 서울 집회는 대회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 선언문 낭독, 단체 행진으로 이뤄

졌다. 마지막 식순인 단체 행진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시청과 을지로, 이어 종로 및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했다. 주최 측의 이번 집회 추산 인원은 1만 4천여 명이다. 이는 애초 예상됐던 약 5,000명의 인원보다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수치다. 이에 따라 기존 왕복 8차선 도로 중 5개 차로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차로 통제 확대 요구에 의해 6개 차로에서 노동절 대회가 이어졌다.

대회를 맡은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우자. 남성이면 여성을 위해, 정규직이면 비정규직을 위해 노력하자. 큰 회사에 다닌다면 작은 사업장을 위해 싸우자. 비장애인이면 장애인을 위해 나서자. 노동조합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자”며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내자”고 천명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유지향(전국언론노동조합 방승작가지부) 사무국장장과 오대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단상에 올랐다. 선언문 낭독에는 김진익(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을 포함해 총 16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16개



▲단체 행진이 마무리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노동자들이 결의를 표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언론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정부경제서비스노조연맹 ▲전국민주화학생유노조연맹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차별 없는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 불안 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을 연호했다.

## 연대하는 청년

이번 노동절 대회에는 청년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역대학 인권연동동아리’의 참여도 있었다.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상혁(서울지역대학 인권연동동아리) 대표는 “우리 동아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며 “매년 진행되는 집회가 실제로 우리 사회를 노동중심 사회로 만드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절 대회에 참여한 대학생 대표들과 일반 학생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박준형(성공회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위원장은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참여 소회를 밝혔다. 임현창(고려대학교 철학과) 재학생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기 위해 참여했다”며 “모든 사람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이어나가는 노조원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이병연(전국대학노조 송실대학교지부 학사행정지회) 지회장은 “불합리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알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며 “모든 시민이 서로가 처한 환경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공약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권이 시작된 지 불과 6일, 새 정부의 노동 관련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국회 민낯 들춘 ‘검수완박’

‘검수완박’. 지난달 내내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일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축약어인 검수완박은 흔히 이번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내용도 사회적 의견이 엇갈리지만, 통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문제시됐다. 종래에는 ‘폭력 국회’, ‘동물 국회’라는 존평을 피하지 못했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두 법안의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검찰의 별건 수사 제한 등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개로 대폭 축소시키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별개 사건의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이를 기소해 재판을 치르는 검사를 분리한 것이다.

문제는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 추접한 모습이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원된 온갖 ‘꼼수’와 추태는

절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래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의 의원이 찬성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법안의 입법은 제자리에 멈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동등한 숫자로 구성된다. 이 중 2/3 이상이 동의해야 다시 입법 절차가 개시되는 정책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시 야당 측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속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해당 안건위에 속했다는 점에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온갖 욕설은 국회가 무법지대인 것 마냥 즐비했다.

‘회기 쪼개기’ 수법도 고개를 들었다. 필리버스터가 국회의 ‘회기’가 끝날 때 동시에 종료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다.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한 정당이 회기를 일찍 끝내버리면 다음날 바로 본회의를 다시 열고 필리버스터의 방해 없이 본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역시 회기 쪼개기 전략이 작용해 당시 야당 측의 합법적 합의를 묵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다. 이는 본래 거대 정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고안됐으며, 이를 가리켜 ‘국회선진화법’이라 부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통과 과정을 두고 변종 날치기 입법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정당한 입법 절차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번의 사건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회의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꼬집었다. 하상웅(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며 “법과 제도의 맹점을 찾기 전에 그것의 운용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기 : 국회의 개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법률속의LAW

### 무너진 검증대, ‘인사청문회’

새 정부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다. 해당 자리에서는 후보자에게 날선 정책 질의를 던지고, 이를 후보자가 답변함으로써 그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비리와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임에도 임명이 강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일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 2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조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됐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에서는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담당한다.

한편, 후보자들은 모든 질의에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후보자는 일부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명색이 인사청문회를 치렀음에도, 그 결과와 다르게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저 거쳐 가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많은 이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에 대해, 왜 그를 후보자로 세웠는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2017 5 M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MAY

2022 5 M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826일이 지나간 길, 청년의 봄은 도래했나

춧불시위로 막을 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끝맺음한 문재인 정부를 뒤로하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청년 일자리대책',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의 1826일이 흐른 지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

## 늘어난 일자리 속 잃어버린 질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시행한 것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이듬해인 2018년 3월 일자리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공개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연간 청년채용인원은 2016년 1.9만 명에서 2020년 2.3만 명까지 늘어났으며, 기업당 평균채용인원 역시 같은 기간 5.1명에서 7.1명까지 증가했다.

단순히 일자리 규모 증대 외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 측면의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 역시 청년의 구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제공은 청년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계적 증가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함정이라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청년의 고용 수는 증가했지만, 대중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자리의 '질'이 아닌 '수'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통계청에서 밝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2020년보다 9만 4천여 명이 줄었으며 반대로 비정규직은 64만여 명이 증가했다. 정영성(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처장은 "청년 입장에서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무에 필요한 공부가 가능한 직업이 필요하다"며 "막상 정부 정책으로 공급한 일자리를 짧은 기간의 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청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구직자 128만 명 이상에 대한 지원 ▲전체 근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와 다양한 지원금의 대상 확대는 2025년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 선택적 혜택 속 엇갈린 청년 주거지

문재인 정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청년 주거 문제를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당선 당해인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추가적인 구체화를 거친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기숙사 6만 명 제공 ▲청년 42만 명 주택 금융 지원 등이 2018년부터 5개년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주택은 거주자에게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된 효과를 주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역시 강화되면서 최대 금리는 2018년 2.7%에서 2020년 2.1%까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통한 거주 가능 인구의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는 고무적이었으며,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역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에 실제로 수혜를 받은 청년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혜자가 특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돼 대다수의 청년층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주거지 공급이 사실상 공공 부문에 의존할 뿐더러 이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정부 통계에 따른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에 따르면 행복·청년 공공주택은 2,219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

아님에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니 오히려 수혜를 받는 청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년과 청년,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다. 시간이 지나며 부동산의 문제는 전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 문제의 해결을 사회초년생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되려 청년에게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진 청년 복지의 가이드라인

청년 복지 정책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뼈대를 세웠다. 이 법은 2020년 8월 제정된 후 청년정책 관련 첫 종합 법률로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내리며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수립과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수립 등을 이뤄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추후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담긴 청년특별대책,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청년 복지를 위한 체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최 연구실장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 발표된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 중인 상태로 현 정부한테 넘어왔다. 청년이라는 대상을 특정해 정책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려면 그 몫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복지 정책은 학업부터 건강 문제까지 삶의 전반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교 입학금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반값등록금'의 확대 역시 시행했다. 정부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2018년 전면 폐지됐으며, 사립대 입학금의 경우 2017년 77.3만 원에서 2021년 22.4만 원까지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적용 대상 역시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까지 확대됐다. 국가건강검진도 2019년 1월 848만 명의 청년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정 사무처장은 "복지 분야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만큼 영향이 크다. 생활에 근접한 지원은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 정책에 뒤따르는 형평성 논란은 지난 5년간 지속된 문제였다. 일례로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약 290만 명의 인원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발생하며 참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다. 최 연구실장은 "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 대상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과 특정 계층에게 최대의 혜택을 지급하는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이 각각 다르다"며 "각 정책마다 맞는 대상을 적용시킨다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공이 있지만, 실제 청년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후일을 지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사무처장은 "청년정책의 주체는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정책을 함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초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미래에 시행할 정책을 제시하는데 우선점을 뒀다. 현 정부가 이렇게 개발적으로 제시된 청년정책을 세분화 과정을 거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청년의 봄은 아직 오고 있다. 틀 잡힌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해 민간 주택 및 임대는 합쳐도 857가구만이 공급됐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정책연구실장은 "청년에 대한 부동산 지원은 특정 빈곤 계층에만 한정되었다. 청년에게 거주지가 또 다른 제한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 제보하기

합리적인 학생사회를 대변하고 학생사회에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facebook : @hansungpresscenter



# 투자를 내 것으로, ‘박곰희 TV’ 박동호 대표

‘2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3가지 방법’, ‘1만 원으로 투자 시작하는 5가지 방법’. 투자에 입문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숭고할 영상의 제목이다. 이런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면서 강의로 한 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투자를 쉽게 알려주고 싶다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유튜브 채널 ‘박곰희 TV’의 박동호(36) 대표다.

## 청년 투자 가이드 박곰희

54만 구독자를 지닌 박 대표가 자신의 투자 지식을 전달하는 법은 조금 남다르다. 투자의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준다. 단순히 투자할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다.

“답을 알려주는 것이 편해요. 만약 제가 정답을 알려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찾고 채널의 성장 역시 훨씬 쉬웠겠죠. 하지만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그의 가치관은 채널명 ‘박곰희 TV’와 ‘내돈은 내손으로’라는 슬로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채널명의 ‘박곰희’는 ‘빠꼼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빠꼼이는 어떤 일이나 사정에 막힘없이 환하거나 눈치 빠르고 약은 사람을 이르는 금융권의 은어다. 박 대표는 빠꼼이의 긍정적인 뜻에 주목해 구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득을 잘 챙기길 바라는 이유에서 채널명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옆에 조력자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내 돈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빠꼼이’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요.”

주식에 일가견이 있는 박 대표도 처음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늦깎이로 경영학을 공부하던 그는 장차 증권사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는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6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과에 들어갔을 때 투자에 대한 꿈이 있진 않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앞으로 내게 좋을지 고민하다 보니 증권사로 진로를 정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증권사에 입사한 박 대표는 투자에 대한 부족한 경험을 메우기 위한 공부를 병행했다. 노력의 결과로 그는 점차 더 많은 고객을 담당하게 됐다.

“취업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이었어요.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인턴 프로그램 같은 대외 활동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적으로 부족했죠. 늦춰진 시작점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밖에 없다는 생각에 입사 초기 당시 퇴근 후에 남아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 그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더 큰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담당하는 고객의 수가 몇천 명을 웃돌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사람에게 투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진 것이다.

“증권사의 특성상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가 다반사예요. 이미 큰 금액을 보유한 사람은 짧게 투자해도 큰 금액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분들을 챙기는 일이 비록 저한테 더 큰 이익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돈을 벌 때의 만족감은 남다르더라고요. 몇천 명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퇴사했죠.”

퇴사 후 박 대표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자산 관리 강사였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강의에 대한 수요는 없었으며, 되려 포트폴리오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할잖아 강요한다는 말을 누구도 쉽사리 믿지 않았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시 교육적인 성격보다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웠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기 시작했어요.”

박 대표는 ‘박곰희 TV’를 개설한지 2년 반이 돼가는 지금도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그는 채널이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 목표였던 투자 전문가로서의 강의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투자법을 담은 책 저서를 출판하고 있다. 박 대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주식을 알릴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길도 개척하는 미래를 그린다.



사진 제공 : 박곰희 TV

## 투자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박 대표는 최근 투자에 쏟아진 관심이 청년을 넘어 전 세대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며 투자 시장 내 일부 종목들이 폭락과 급등을 반복했고, 급등 종목을 잡아 단기간에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폭락한 이후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졌어요. 많은 매체에서 이때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장에 참여했죠. 하지만 추후에 점차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볼 수 없어요.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공부와 돈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투자는 실패할 경우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에게 투자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취업 전 청년에게 ‘꾸준한’ 투자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의 투자 환경이 다르겠지만 취업 전과 후의 차이는 특히 커요. 취업 전의 청년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투자에 사용하는 돈은 모두 목돈이에요. 꾸준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투자를 위한 급진적 여유가 없어 이득을 보기란 어려워요.”

하지만 어린 시절 투자에 돈과 시간을 쏟는 것의 의미가 없진 않다는 것이 박 대표의 전언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하며 실패한 경험과, 그때 겪는 감정이 쌓여 추후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청년의 투자가 ‘잃어서 아쉽다’에서 멈추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가치관 역시 경험의 중요성에서 나왔다.

“투자의 과정에서 손실을 본다면 타격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부담이 되지만, 추후 투자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물론 경험을 쌓기 위한 투자 습관과 공부도 함께 뒷받침돼야 해요.”

박 대표는 투자를 위한 공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섭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이 아닌 ▲경제 ▲산업 ▲기업 ▲투자의 방법론 4가지를 모두 겸하는 것이 그가 중요시 하는 투자의 기본이다. 자기주도적인 투자를 하려면 가격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출근길 혹은 아침에 잠깐 보는 경제 뉴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현명한 투자의 기본이 돼요. 지식이 뒷받침돼야 주가의 변동이 아닌 그 배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알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 역시 그가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박 대표는 주식의 가격 변화만을 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실제로 단순한 가격 변동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나 유행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했다.

“차트 속 나열된 가격에 중점을 두는 습관을 없애야 해요. 단순히 5만 원에 사서 5만 5천 원에 팔았다고 좋아한다면 기업을 보고 매매했다고 할 수 없어요. 기본 지식을 쌓았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투자에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의 투자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박 대표는 스스로 투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투자를 학습하거나 정보를 얻기 용이해졌다는 점과 청년에게는 부족한 돈 대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고 있다.

“청년들이 불리한 점만이나 투자에 대한 기회도 많아졌어요. 진입장벽도 낮아졌고, 방학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손이 안 가는 기회들을 꼼꼼히 계획해 투자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사진 제공 : 박곰희 TV

▲박동호 대표가 강의를 통해 자신의 투자법을 전달하고 있다.

'상경계열 우대', '이공계열 우대'. 기업들이 내놓는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하지만 그중에서 기초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우대해 채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초학문이란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으로, 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일컫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별다른 충격을 안겨주지도 않는다. 이런 추세는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 서까지 예외가 아니다. <한성대신문>은 기초학문이 당면한 위기와 원인을 알아보고,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호에 걸쳐 기획 기사를 송고한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현실과 이상의 괴리, 기초학문 ②

본지 577호 「어두운 현실 아래, 기초학문 ①」에서는 기초학문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들여다봤다.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학과는 수시로 정원 감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막상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가 되더라도 이를 소화시킬 자리가 없다는 것이 현 한국 사회에서 기초학문이 가지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 기초학문의 발전이 모두와 연계된 것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인식시켜야 한다 ”

근본적으로는 대학을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는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풍토가 기초학문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학교는 본디 취직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닌, 학문을 교육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평가인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이러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평가의 '학생 교육 노력 및 평가' 부문에서 가장 큰 배점을 가진 항목은 '순수취업률'과 '유지취업률'로 각각 18점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80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 대학의 '학생 교육'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일반인과 인식을 같이 한다. 인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이예원(25) 씨는 "대학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대학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취업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변질된 대학의 목적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학문은 순수학문이 아닌 응용학문이다. 실제로 작년 2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인문계열 2018년 졸업생 취업률은 64.6%로 77.7%인 2018년 공학계열 졸업생 취업률과 현격히 비교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 응용학문 계열 학과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 '100% 취업 보장'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취업 강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8년 전국 대학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만 전국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설치된

학과는 총 21개에 이른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해당 과생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협약을 고려하고 있는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등이 대표적인 예다.

순수학문 계열 전공은 이런 현실과의 타협에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기초학문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녹아들 필요성이 있다고 충언하기도 한다. 기초학문이 다른 학문 혹은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맥락이다. 류웅재(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학은 내부적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학제적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융·복합 커리큘럼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면서 "기초학문이 이러한 현실지향적인 응용학문의 특성을 토대로 이를 통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급격한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의 줄거림 속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문이 퇴행하는 요인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이 꼽히기도 한다. 이 규제는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 충원을 늘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본래 대학, 기업, 공장 등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도리어 대학에서는 기초학문 학과의 구조조정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해진 총원 내에서 여러모로 이득으로 작용하는 응용학문 학과의 충원을 늘리기 위해 기초학문 전공의 정원을 줄인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기초학문 학과가 고전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학문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기초학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동현(우송대학교 교양대학) 학장은 "애초에 모든 학교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조정 역시 고스란히 기초학문 전공 학과가 감당해내야 하는 몫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학문 전공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응용학문의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문계열 졸업생 42.5%가 상경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이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주전공자는 상경계열을 복수전공할 경우, 단일전공 학생보다 취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질의 전공자 양성이 힘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다. 손 학장은 "기초학문 전공에 적을 둔 학생들에게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하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상황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재정·정책적 지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전체 지원 예산 8조 2,870억 원 중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액은 2,416억 원에 불과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주요 연구 성과들도 평균 3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기초학문에서의 성과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투자가 어려워지니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박정하(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기초학문 부흥에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제어하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비판 받는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통제가 조금은 느슨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경찬(연세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므로 새로운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그를 밑거름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체제는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대학원 역시 모든 학과의 대학원이 모든 학교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문 연구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특성화 대학원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초학문 몰락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으로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학계는 전한다. 민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산업 및 사회 발전, 생산성에 기초학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근거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에게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논문 중심적이고 양적으로 획일화된 학문 평가 시스템은 학문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초학문이 후미진 곳으로 고립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기사에서는 기초학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음호에 계속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해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삼 학 송 ·

# 대학언론을 지켜야 한다

“비판 논조의 기사라면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기사 방향은 저희가 드린 자료대로 작성해주세요”, “발행 전 완성된 기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학언론 인이라면 매 취재마다 듣는 이야기일 것이다. 학생 신분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은 언론자유의 실현은커녕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듣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언론의 자유’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학언론이 명목상 소속 대학의 산하기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학보의 발행인은 총장이고 편집인겸주간은 교수다. 하지만 대학언론의 견제 대상 중 하나가 대학본부인만큼, 당연히 대학언론은 대학의 부정적 이슈에 더 날을 세우는 ‘하극상’의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학은 그들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위신을 우려하니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은 부지기수다. 특히 대부분의 발행 예산을 대학본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무기로 삼아, 학보사를 억박지르는 경우도 타학 교의 사례를 찾아보면 그리 드물지 않다. 더욱이 악의적으로 대학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켜 ‘대학언론’이라는 명패만 걸고 있는 학보사도 수도룩하다.

이러한 바람 앞 등불과 같은 대학 내의 언론자유를 공고히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그리고 쿠키뉴스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대학언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방법과 개선 및 보완점이 모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학언론인은 “총학생회와의 협업 및 연대를 통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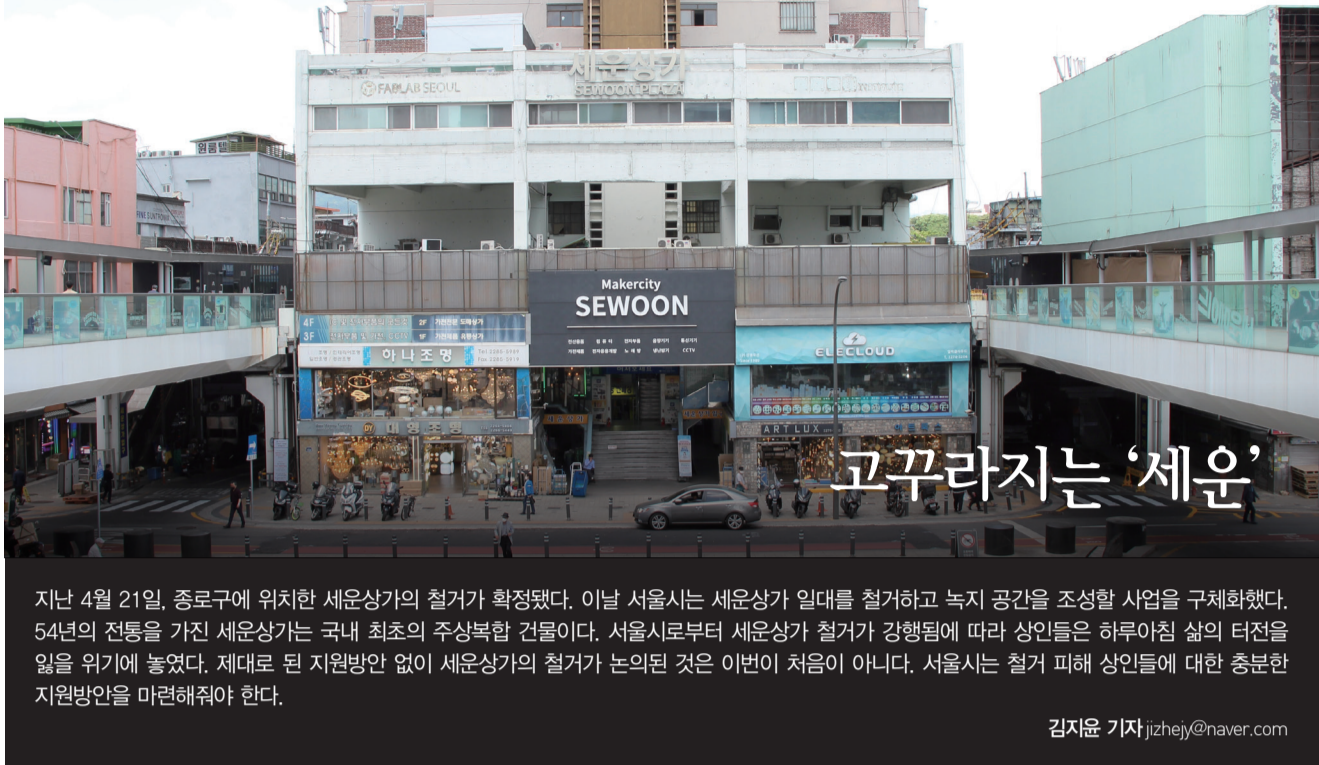
학언론의 부흥을 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대학본부라는 거대 조직에 맞서 학생기구끼리 힘을 합치자는 그 저의는 이해하나 이는 독이 든 성배나 진배없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일컫는 이 말은 흔히 정치와 언론을 표현할 때 쓰인다. 물론 대학사회 내의 총학생회와 대학언론 사이에서도 이 금언은 적용된다. 대학언론은 학생자치기구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한다. 만약 학생대표들과 끈끈한 연대 관계를 형성한다면 제대로 된 비판은커녕 ‘슬리핑독’이나 ‘가드독’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다른 대학언론인은 “학내 유명인을 활용한 SNS 마케팅으로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일리는 있다.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학사제도 개편 혹은 수강신청 오류 등 학내 이슈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발행되면 학보에 대한 관심도는 눈에 띄게 높아진다. 언론으로서 기능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언제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영광을 굳이 외부 요인에 애소할 정도로 대학언론의 현재는 초라하다.

대학언론의 수장들조차 이토록 대학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 본인 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이렇듯 언론의 역할을 잃어가는 대학언론이 시나브로 늘어가고 있다. 일부 대학언론의 경우, 이미 소속 대학의 홍보팀 정도로 전락한 경우도 허다하다. ‘대학언론이 위기’라는 말은 10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지속됐다. 이제는 정말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꺼져가는 대학언론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혜림 편집국장

## 김기자의 시선



### 고꾸라지는 ‘세운’

지난 4월 21일,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의 철거가 확정됐다. 이날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할 사업을 구체화했다. 54년의 전통을 가진 세운상가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서울시로부터 세운상가 철거가 강행됨에 따라 상인들은 하루이침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제대로 된 지원방안 없이 세운상가의 철거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철거 피해 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기자수첩

세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가 이달 초부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보자 개인의 비리 의혹에 집중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비판 속에서 정책 질의는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문회의 주요한 목적인 정책 검증은 뒷전에 미뤄둔 채, 후보 개인의 치부만 들추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물론 청문회도 정치인들이 진행하기에, 당연히 그들의 정치적 실익이나 당리당락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의 한 역할이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다른 모든 역할을 무시할 정도로 중요한지는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일개 부

## 역할 잃은 청문회

처의 우두머리가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고 하면 비단 도덕성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통솔력까지도 골고루 살펴야 한다.

애석하게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기자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청문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 고위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기보다는 자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정부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장으로만 청문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당으로서 청문회에 임한 경력이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의 본질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청문회를 자질 검증의 자리가 아닌 정치적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렸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자녀 논문 대필, 부동산 의혹 등에 대해 서면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일 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예 ‘정책이 실종된 청문회’라고 보도될 만큼 전문성을 검증할 만한 질의는 미비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 공직자의 비리를 꼬집으면 민주당은 정책 토론을 위한 자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의 언행을 되새겨 청문회의 본래 역할을 호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의화정

# 나는 당신이 독서를 욕망하길 바란다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영장류인 보노보, 오랑우탄, 침팬지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인간과 유전자적으로 99% 일치하는 침팬지와 구별되는 1%의 차이를 과학자들은 뇌와 머리뼈의 생성 순서에서 찾았다. 인간은 뇌의 크기를 최대 한도로 키우고 머리뼈를 닫는데 반해, 침팬지는 머리뼈를 만들고 그 속에 뇌를 채운다. 그 1%의 차이가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머리뼈가 닫히는 생후 24개월이 지나면 인간의 뇌는 성장을 멈추는 것일까? 우리는 경험으로 이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활동은 우리의 뇌를 성장시킨다. 뇌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이자 뇌과학자인 레히티는 신체 운동을 통해 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물질인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수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신경세포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뇌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운동 후 학습이 없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독서는 그 활동 하나만으로도 뇌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서를 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일들

중의 하나이다.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고(26.5%), 다른 매체나 콘텐츠 이용하느라(26.2%) 독서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의 성장은 독서시간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하고 우리의 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뇌는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 즉 뇌의 가소성을 믿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지만 뇌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캐롤 드웁은 연구를 통해 뇌의 가소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은 향상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성적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뇌의 가소성’에 대한 단순한 믿음 하나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이다. 당신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라는 말로 인간, 즉 사피엔스들의 욕망과 그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이 뇌를 성장시키면서 변화, 즉 성취를 얻고자 한다면 욕망하기를 바란다. ‘나는 책을 읽고 싶다.’

박성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낙산에 올라

# 애플페이는 한국에 상륙할 수 있을까?

‘애플페이(Apple Pay)’의 국내 도입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염원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독자적 신용카드 결제 규격인 KLSK(Korea Local Smart Card) 개발과 함께 드디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최근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비접촉 결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로 기간 정보를 송수신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IC 카드를 삽입하거나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 정세와 다르게 금융당국의 뒤처진 대응과 단말기 보급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NFC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카드 단말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LSK 규격의 개발로 결제 시장의 표준 규격 중 하나인 EMV(Europay, Mastercard, Visa)의 인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기존의 단말기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도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에서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KLSK가 EMV의 인증을 받아서 국내 NFC규격이 표준화되더라도, 해외결제 기능이 없는 국내 카드에만 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는 한국 시장에 한해 발행되는 카드의 절반 이상이 해외결제 기능이 포함된 카드라는 사실을 간

과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애플이든 국내 금융당국이든 고작 25%의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애플페이를 도입하고자 무작정 큰 투자를 하기는 난감한 상황으로 보인다.

2022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10위권 내에 속한 국가 중 애플페이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한국이 전 세계의 IT 흐름에서 고립됨을 뜻하는 ‘IT 갈라파고스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국제표준에 맞추지 못한 독자적인 형태의 발전은 세계시장에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마저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왜곡정책을 지양하고 세계의 흐름과 발맞춰 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박광수(컴공 2)

##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백주영(인문 1) 임리빈(IT 1)

##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4월 29일 『초·중등 예비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도서를 출판했다.

한미애(디자인대학) 교수  
한 교수는 작년에 이어 ‘인천아시아아트쇼’의 예술총감독으로 선정됐다.

한민규(IT융합공학부) 교수  
한 교수는 지난 4월 21일 진행된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구독 전성시대 : 청년을 사로잡다

## 고독한 인생 말고, 구독한 인생

과거에는 '구독'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신문'을 떠올렸다. 애초에 구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문·잡지' 따위의 정기 간행물을 받는 것이라는 뜻 정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당장 옆 사람을 불렀고 다짜고짜 물어보라. "너 뭐 구독해?" 장담컨대 그 대답이 이전처럼 신문이나 잡지는 아닐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구독 서비스란 일경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면 구독 기간 동안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독하는 서비스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관 앞에 배송까지해주는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이에

기존 소비 트렌드는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실제로 확인한 후 구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즉 언택트(untact)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났다. 김대중(중대하교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되기 적합한 환경이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범위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구독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편리함이 장점이 '홈서비스'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구독 시장은 ▲콘텐츠 ▲생활 편의 ▲식품 ▲뷰티패션 ▲예술헤이 등의 분야까지 점점 확장됐다. 임일(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구독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구독의 개념은 모든 소비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독 시장은 목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구독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이 속하는 '무제한 이용형 모델'이 있다. 해당 모델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콘텐츠를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공평(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소정의 의미를 갖는 기존 구매 방식과 달리 무제한 이용형 모델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고 전했다.

두 번째 유형은 '정기 배송형 모델'이다. 세탁물 정기 배송, 샐러드 정기 배송 등이 속한 이 모델은 구독료를 지불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기 배송형 모델에 의해 구독 서비스들이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사 노동 중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손쉽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렌탈형 구독 모델이 있다. 해당 모델은 제품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로 정기 납부를 통해 대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고가의 상품을 굳이 구매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종우(연성대학교 유통물류과) 교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의 부담이 장점이 '홈서비스'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구독 시장은 ▲콘텐츠 ▲생활 편의 ▲식품 ▲뷰티패션 ▲예술헤이 등의 분야까지 점점 확장됐다. 임일(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구독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구독의 개념은 모든 소비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독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이 속하는 '무제한 이용형 모델'이 있다. 해당 모델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콘텐츠를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공평(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소정의 의미를 갖는 기존 구매 방식과 달리 무제한 이용형 모델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고 전했다.

두 번째 유형은 '정기 배송형 모델'이다. 세탁물 정기 배송, 샐러드 정기 배송 등이 속한 이 모델은 구독료를 지불하면



### 지금 다가온, 구독서비스 ON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만 봐도 14,000원인 지금, 한 달 9,900원으로 수많은 유명 영화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그뿐만이. 배달을 현관에 걸어두기만 해도 다음날 배송하게 세탁된 옷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구독'이라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현관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줄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강 기지와 살펴보자.

#### 무조건 빠져들 무제한 서비스

강 기지는 대학에 입학한 후 다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새내기들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전문 교재를 구매하는 것조차 벅찬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몇 권이든 책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도 없다. 준비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뿐이다. 무엇보다 종이책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지 않아 무거운 무게도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심지어 글자를 읽지 않고 독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전자책 서비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성 합성 기술(Text To Speech)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컴퓨터가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준다. 이동할 때나 잠에 들기 전처럼 글씨에 집중하기 힘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독서하기 좋은 방법이다.

#### 지갑 지림이 렌탈 서비스

이제 우리 삶에서 마스크는 피부와 같은 존재가 됐다. 비록 최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그동안 마스크에 자극받은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자급 사정으로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뷰티기기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뷰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픽앤픽', '뷰티컴파니' 등의 홈페이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금 문제로부터 해방된다. 대여 기간도 단 하루부터 일 년 이상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 주기적인 관리와 부품 교체가 필요한 홈케어 기기들의 경우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업체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목돈이 필요해 구매하지 못했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 렌탈 서비스로 한번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 문 앞에서 마주치는 맞춤 배송 서비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피도 크고 세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이불을 빨아야 할 때가 오면 기저는 걱정이 앞서곤 한다. 꼭 이불 빨래만이 아니라라도 매일 남쳐나가는 빨랫감은 그 자체로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그럴 때 세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찜찜한

강승원 기자 | ksw905@hansung.ac.kr

임혜은 기자 | hyeeun0115@naver.com

**구독의 역사**

- 신문
- 우유
- 음원
- 전자책
- 자동차
- 플래너
- 배송

**구독 시장의 범위**

- 콘텐츠
- 식품
- 언더웨어
- 생활편의
- 뷰티
- 예술·취미